

### 광주·전남 국고예산 어디에, 얼마나 반영됐나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284조 5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188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8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는 본회의장내에서 플래카드를 펼쳐며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선진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연합뉴스

## 광주 가전로봇 등 차세대 성장 35억 확보

광주시와 전남도의 2009년도 국고 사업비가 올해보다 4~12% 증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차세대 3대 성장산업 관련 예산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전남도는 우주산업과 SOC 관련 분야 예산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 광주시

▲차세대 성장산업=광주시가 광(光)산업 이후 추진중인 신성장 동력 산업 관련 확보예산은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육성사업'(용역비 5억원), '가전로봇 육성사업'(20억원) 'LED 실증센터 지원사업'(10억원) 등이다.

클린디젤 자동차 산업이 광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되면 대단위 복합단지 조성 및 공동설비 구축과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광주의 산업구조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총 900억원 규모의 가전로봇 육성사업은 내년에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모델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수도 투자진흥지구 30억 반영도

### 전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54억 배정

▲문화수도 조성사업=문화수도 조성사업과 관련, '투자진흥지구'(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 일대) 조성 사업비(30억원)이 반영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이 사업에는 향후 국비 208억원이 반영되며, 2천여억원 이상의 민자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300억원), 양립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40억원),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용역비 3억원), 빛고를 문화커뮤니티 건립(80억원) 사업비가 확보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물론 문화도시 기반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SOC 관련 사업=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비(2천572억원), 국가지원 지방도(국지도) 49호선 건설(258억원) 등의 예산이 확보돼 골조적인 지역 현안사업이 활력을 얻게됐다.

국지도 49호선 사업은 모두 2천6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

해 광주, 나주, 장성간 연계도로가 확충됨으로써 광주와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제3순환도로 건설 사업비(110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46억), 광주 국립과학관 건립비(43억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비(270억원)도 확보됐다.

#### 전남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3천758억 원,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2천620억 원, 순천~여수 간 철도개량 1천900억 원, 익산~순천 간 복선전철화 1천300억 원, 여수~순천 간 국도 17호선 건설 355억 원 등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에 예산이 지원된다.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 1천700억 원과 화양~적금 간 연도교 건설 150억 원, 영남~적금 간 연도교 건설 255억 원 등도 예산이 확보됐다.

▲SOC 관련 사업=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 3천758억 원, 목포~광양 간 2천620억 원, 광주~완도 간 21억 원 등 고속도로 3개 노선 건설에 6천399억 원이 지원된다. 또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1천879억 원, 향만건설 981억 원, 송공 연안항 개발 5억 원 등 4개 항만 건설·개발분야에 2천865억 원의 예산지원이 결정됐다.

철도분야는 6개 사업에 7천527억 원이 배정됐다. 호남고속철도 건설 3천220억 원, 전라선 복선전철화 3천200억 원, 동순천~광양 간 복선화 800억 원, 진주~광양 간 철도건설 3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성장 신산업분야=미개발 분야인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4억원이 배정됐다. 또 울촌제1산단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392억 원, 대불산단 교량 하중보강공사에 73억 원,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70억 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벨트조성사업에 42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일단 많이 확보하고 ... 깎일 것에 대비하고 ...”

## 광주시 예산 편성 허점 많다

### 광통신부품비 등 불필요 추경 편성

광주시의회는 14일 2008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심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주요 사업예산의 사전 검토·심사 부실 등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방만한 편성=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2008 제 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광주시의 방만한 예산 운용 사례를 분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쓰든 안 쓰든 일단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광주시 예산 정책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의회측 입장이다.

예컨대 광주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안 편성 때 '광통신부품·서비스시스템 제품 생산 지원'사업을 위해 2억5천만원을 타놓았지만 결국 2천5천2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이번 예산안 편성때 그만큼 감액 편성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또 지난해 교통정보센터 공공 운영비 15억5천300여만원 가운데 13억9천800여만원만 올해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편성한 경우도 비슷하다. 경제 위기를 감안해 1억5천500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이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15억6천만원을 책정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성 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이같은 방만한 예산 편성 문제점이 모든 부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내용을 따져 공개할 계획

이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예산안을 올리면서 깎일 것에 대비, '뺑뺑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상 외로 삭감되지 않고 책정되면서 예산이 남게 되자 뒤늦게 삭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재신(민주·광산 2)·조호권(민주·북구 4) 의원 등은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못 쓰는데 많은데, 1차 추가경정예산안 때 예산을 편성한 뒤 쓰지도 않고 있다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감액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비효율적인 10% 절감 계획=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이미 편성, 집행중인 각종 사업 예산을 재조정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확실적인 10% 절감 계획을 적용하다보니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시의회측 입장이다. 예컨대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했다가 예산 절감 등으로 4억7천만원으로 집행한 것은 비효율적 예산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완공된 지 10년이 지난 시설물의 경우 이후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근거로 교량 8곳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 6억원을 편성했다가 5곳만 실시한 뒤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예산 절감'이라며 감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결식학생 후원 조례안

### 장학금 지원 사업 포함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추진중인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협의 당시 없던 '장학금 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5일 제 175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상정한 '광주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민기초수급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학생 외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내 5천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재단 설립과 운영 방안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그러나 조례안에 재단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외에 '장학금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들어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될 수 있는 만큼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광주시와 시교육청, 송원문화재단이 지난 2월 '결식학생 제로(Zero)화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은 결식 학생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일 뿐 장학금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학금 지원이 포함될 경우 자칫 결식학생 중식 지원을 위해 출연·기부받은 기금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측 입장으로, 광주시도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